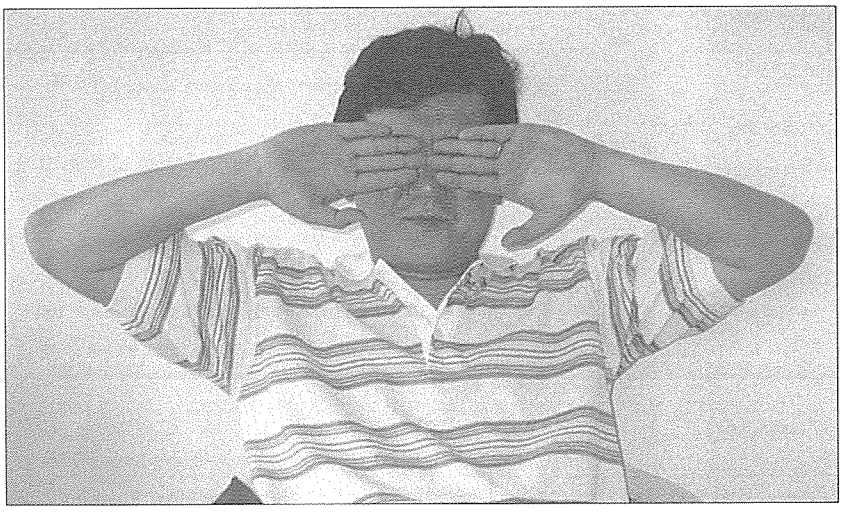
아버지 신드롬 메이커 김정현

지난 10년 동안 단행본으로서 최고의 판매부수, 1백60만부가 넘는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며 무서운 기세로 몰아붙인 〈아버지〉의 돌풍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세상의 반이 남자(男子). 그들은 아버지이거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 현재 아버지의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의 상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저자 김정현을 직접 만나 그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글 / 안정미 기자

인터뷰를 위해 신사동의 S카페에서 만난,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인터뷰는 카페에서 했지만 그 전부터, 아침밥 먹을 때부터 기자가 쫓아다녔음) 그 카페 건너편의 국밥집(?)에서 만난 〈아버지〉의 저자 김정현의 첫인상은 편한 이웃집 아저씨 같았다. 반팔티에 반바지, 그리고 운동화.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배를 채우는 그의 모습이 과히 낯설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자식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이야기할 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김정현. 그가 두 눈을 가리고 아이처럼 웃었다. 가린 두 눈 속에는 아이들의 모습이 더욱 깊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첫 눈에 그가 형식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형식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단지 글을 쓰고 싶어서 글을 쓸 뿐

그가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간단하다. 자신의 마음 속에 쌓여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쓴다. 그의 비유에 따르면 장님이 눈이 멀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듯이 그는 글을 쓰게 된 것에 대해 특별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

누구나 마음 속에 아버지가 있고 또한 다행히도(?) 아버지를 쓰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것만으로도 그에겐 아버지란 훌륭한 소재가 된다. 뭇사람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어느 날 문득 TV 속에서 묘사되는 '간 큰 남자' 시리즈가 그의 손을 자극했다고나 할까. 코미디의 우화 대상으로 아버지를 택한 것에 대해 무척 약이 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논 것이리라.

너무나도 평범한 말-아버지는 아내의 남편이자 자식의 아버지

과거에는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이지 않았느

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뜸 무엇이 권위냐며 기자에게 묻는다. 그의 권위예찬론(?)은 다음과 같다.

"사람은 과거의 권위에 대해 전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권위라고 표현하면 권위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권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옛날의 아버지도 지금의 아버지도 앞으로의 아버지도 영원히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살아온 경험으로 사랑하는 자식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일을 볼 때마다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물론 때때로 강요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옳지 않고 저것이 옳다고 일방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발전된 우리 역사를 그것 때문에 그토록 비난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 시절에 따라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상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인들 외로움을 떨구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사랑해요'란 말을 왜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니까 그 시대의 아픔이나 그 시대의 깊은 내면을 몰라서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바뀌어 요즘에는 자식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과거의 아버지에 대해 '과거는 아니었다', '권위였다', '나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발상입니다."

한 마디로 그가 주장하는 아버지는 그냥 사랑을 주는 사람이다.

아버지 영화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현재는 시나리오 작업에 몰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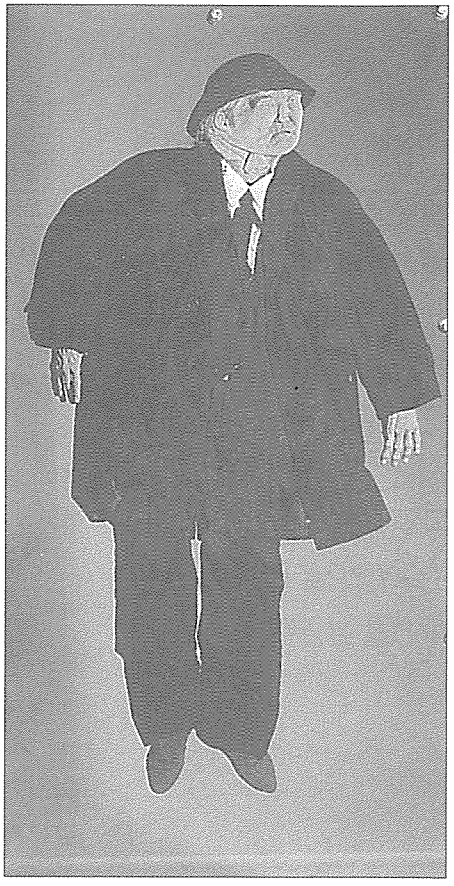
충무로에도 아버지 열풍이 몰아치면서 장길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박근형이 아버지 역을 열연한 〈아버지〉란 영화가 만들어졌다. 그 영화의 실패와 성공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끝까지 그것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는 그가 영화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했다. 아마도 영화에 대한 평은 독자들의 몫이 아닌가 한다.

충무로가 이미 아버지에게로 포커스를 옮겼고 연극계 그리고 출판계에까지 불어닥친 아버지 신드롬은 당분간 계속되리란 예고와는 달리 이미 박정희 신드롬이 나타나면서 신드롬은 또 다른 신드롬을 낳고 문학계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소설가이기 이전 그의 직업이 형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대로 그는 지난 80년부터 92년까지 형사로 재직하면서 80여 차례의 표창을 받은 명수사관이었다. 형사와 소설가.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형사가 등장하는 것은 썩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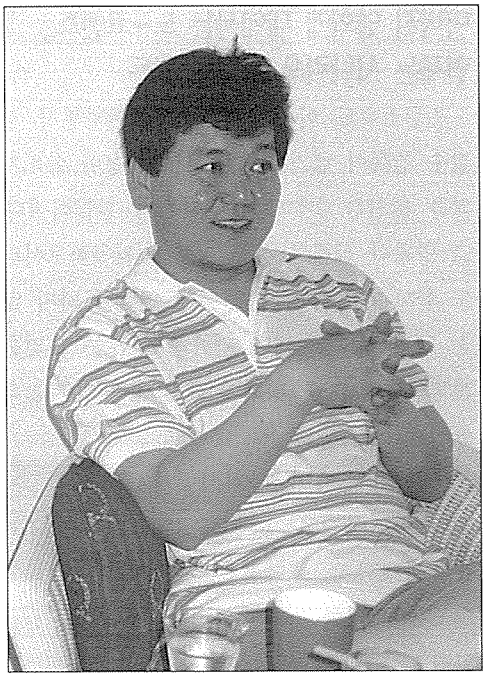
그래서일까. 그가 형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준비중에 있다. 이미 절반은 끝냈다. 시작이 절반은 끝낸 셈이니까.

그가 형사계의 생활을 마감한 이유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간단하게 한 마디로 요



아버지 신드롬과 함께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곡미술관이 아버지란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그림 속 아버지의 어깨가 처져 있고 등이 굽어 있는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진다. 임영선 작품.

"앞으로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과거의 아버지에 대해 '과거는 아니었다', '권위였다', '나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발상입니다."



신사동 S카페에서의 김정현. 아버지는 '아내의 남편이요 자식의 아버지' 라고 하면서 '단지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라고 아버지에 대한 그의 솔직한 느낌을 전했다.

가족들은 결국 한정수에게 내려진 사형인도 소식을 알아내지만 그의 선택은 다시 한번 자신의 희생이다. 장기를 기증하고 화장을 부탁한다. 한정수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잘 길러주시오. 사람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말이오.' 라는 유언을 남긴다.

약이 된다.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쓰고 싶어서 글을 썼다. 앞으로 그가 계속해서 소설가로 이름을 남길 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문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그냥 글을 쓴다' 고 표현한다.

아버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아버지〉란 책을 읽어본 독자는 알겠지만 책의 주인공 한정수는 가족에게 자신의 병을 알리는 데 매우 신중하다. 아니 오히려 가족에게 소외되는 느낌이었다. 기자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가족이라면 아픔도 함께 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김정현은 강경하게 반대논리를 폈다.

"보지 않은 사람의 일방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긴 병을 앓는 사람,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는 사람도 처음에는 절제를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어느 순간에는 매달립니다. 정신이 들 때에는 '자신이 왜 이리 추해지나' 하고 생각합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결국에는 미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의 반대논리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머니의 사랑은 '살찌우는 사랑' 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뼈를 키우는 사랑' 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중에서

〈아버지〉 줄거리

〈아버지〉의 주인공은 50대 가장 한정수.

지방대 출신으로 뒤늦게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고지식한데다 연줄이 없어 한직으로만 전전한다. 대학에 다니는 딸과 고교생인 아들, 그리고 아내가 그를 둘러싼 환경의 전부다. 한정수 부부는 이미 일심동체가 아니다. 시골 출신에 한물간 팝송이나 통속소설을 즐기는 한정수는 클래식음악, 전람회 등 고급문화 지향의 부인 영신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자식들은 한술 더 뜬다. 일과 친구들, 술자리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하는 아버지에 대해 경멸감을 감추지 않는다. 그런 그가 췌장암 선고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겐 알리지 않은 채 혼자만 괴로워하며 더욱 술에 의존한다. 사정을 모르는 가족들은 남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더욱 혐오하고, 급기야 딸은 '아버지, 당신은.' 으로 시작하는 최후 통첩을 띄운다. 애정 표현에 익숙지 않은 아버지 한정수의 딸 사랑은 지극하다 못해 병적이다. 딸이 지망한 서울대 영문과 정원이 35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36번 이상의 버스는 타지도 않은 그였다.

가족들은 결국 한정수에게 내려진 사형언도 소식을 알아내지만 그의 선택은 다시 한번 자신의 희생이다. 장기를 기증하고 화장을 부탁한다. 한정수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잘 길러주시오. 사람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말이오.' 라는 유언을 남긴다.

- 한국경제신문 박준동 기자